

초대시

이재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 내가 택한 너이기에

하나님은 못한 것도 아름답다고,  
어리석은 것도 잘했다 칭찬하시고,  
실수와 무지도 격려하며 용서하시는  
이해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태산을 들어 옮길 믿음의 능력으로,  
바다를 열어 길을 내신 그 소망의 날에  
택한 자와 버린 자를 갈라놓아  
섬김의 도를 순종으로 채우게 하신 주님.

정오의 빛이 있어도 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마음에 반딧불 하나 켜고

두 손 고이 모아 회개하고 생의 빈 잔 높이 드니  
다 채우고도 남은 열두 광주리의 사랑  
보석보다 빛나, 눈 못 뜨고 주님 뵈웁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더 높이 쌓아올린 바벨탑에  
눈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쌓아 올린 순종과 사랑으로 꽃 피우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배우게 하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내 마음속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가 강물 되어 흐르게 하시옵고,  
주님 주신 평화와 위로가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는 차마, 세상은 할 수 없으나  
내가 택한 너이기에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하며

###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강건해야

한국목회자건강연구센터 세미나 개최

한국목회자건강연구센터(회장 권영식 목사)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기독교한국침례회 셋별교  
회(담임 정상신 목사)에서 목회자 건강 상담세미나  
를 인도했다.

이날 권영식 목사는 강의를 통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  
육신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러한 육신도  
잘 다스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 주의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세미나에 이어 오후 시간에는 성화를  
인도했다.

권 목사는 레 1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몸에 균  
형을 잡아주는 교정과 건강법'이라는 제목의 설교



를 통해 "강건해야 무엇든지 할 수 있다. 특히 교  
회는 목회자 부부가 강건해야 교회성도도 영육이  
강건하여 부흥할 수 있다."며 "말씀과 건강을 통해  
교회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 사설

### 안보공백 우려, 기도로 힘 모아야

한미동맹의 와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  
훈련이 축소,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와이 주둔 미  
해병대가 지난 3월 항공기 14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사  
실상의 단독훈련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루이 크라피로  
타 인도·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이 2일 해병대 창설 70  
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자료에 따르면, 이번 훈  
련은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 등 주일 미군기지나 괌이  
 아닌 하와이에서 출동했고, 사실상 한국 해병대를 배제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한반도에서의 미군 작전은  
전구(戰區) 사령부인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게 돼 있  
는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직접 통제했다는 의미다.  
미국이 아예 한국군은 물론 한미연합사까지 제치고 독  
자적 군사활동에 나선 상황도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말부터 공중정찰기 EO-5C 크레이지  
호크를 서해상에 추가 투입하고, 특수전자정찰기인 RC-  
135S 코브라볼을 주일미군 기지에 급파했다. 본토해안경  
비대 함정까지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시켜 북한불법 활적  
을 막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비용 때문에 연합훈련도 못 한다고 했는데 이전 독자  
비용으로 독자적 훈련·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와 언론들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상원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리드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실제위기 시에 훈련부족으로 중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낸 실러번 공화당 상  
원의원은 "군사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며 "대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전쟁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헨리 울슨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은 북한에 값진 협상 카드를 아  
무런 대가 없이 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WP는 또  
민주당 일각의 반응을 인용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  
정은 미국의 위기 대응능력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  
했다. 미국 NBC뉴스는 3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소식  
을 전하며 "북한 전문가들은 주요 훈련이 중단돼 국외  
전투 위험 대응 능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동맹이 난  
기류를 만나 표류해서는 안 된다. 6.25전쟁 중에도 대한  
민국을 구해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또 여호  
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께서  
우리 손에 불이시리라"(삼상 14:47)

### '낙태죄 위헌' 요청 인권위 국민 반감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롯한 수십 가지의  
가진 사회적 성(性)인, 젠더에 대한 인권은 무한정으  
로 보호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  
이 하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가 포함된 악법 소지가 큰 차별금지  
법, 인권기본법, 인권조례 제정 시도,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제2조 6항 폐지 주장, 각 지역별 쿼터제  
에 부스 만들어 동성애 옹호하기, 동성애를 옹호하는 청  
소년 만화·애니메이션·영화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기,  
각 학교에 동성애 옹호하는 학칙 만들도록 종용하기, 기  
독교 학교의 건학이념보다 동성애 옹호를 우위에 두고  
기독교 대학을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편적 인권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세계에서 20년 가까이 가장 인권 후진국으로 억압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방어진역할  
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인권위는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곧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내려질 상황에서,  
'낙태죄 위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반감  
을 사고 있다.

한 마디로 인권위는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거나 원하  
지도 않는 지엽적이고 편협한 인권들에 집착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하여 인권  
위가 건전한 국민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주장들을 펴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을 한다면, 이는 그 존립에 대한  
의구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인권위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한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지나치며,  
헌법이나 국민들이 허락하지도 않은 권력을 행사하면,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가 우리 국민들과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은  
외면하고, 편협한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 인권을 강조  
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가기  
관을 그대로 두고 불 국민들을 앉을 것이다.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  
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